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7월 2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정대진 산업경제정책과장, 차세운 사무관(2110-5115)		

‘상저하중(上低下中)’ 올해 경제, 하반기가 갈림길

- 지경부, 13개 민간 · 국책 경제연구기관과 경제 전망 논의 -
- 하반기 경기개선 흐름 있으나, 향후 대응에 따라 좌우 -

□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하반기를 여는 첫 아침인 7.2(월) 07:30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13개 민간·국책 경제연구소장들과 「경제연구소장 간담회」를 개최하였음 (붙임참조 : 간담회 개최 계획)

○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한국 경제를 전망해 보고, 우리 산업경제가 처한 여건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,

- 특히, 최근 부각되는 경제적 불확실성 및 성장 둔화 우려*를 감안, 이례적으로 1차관 및 5개실 실장도 참석**하여 연구계 의견을 청취

* 6.28일 정부는 `12년 경제성장전망치를 0.4%p 하향조정 (3.7%→3.3%)
** 그간의 연구소장 간담회에는 장관과 실장 1명(산업경제실장)만 참석함이 일반적

□ 홍석우 장관은 각종 대외 불안요인 등으로 우리 실물경제가 처한 여건이 녹록치만은 않으나,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쌓은 “산업의 기초체력”을 바탕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평가

○ 다만,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변수가 갈수록 많아지며 업계가 직면하는 불확실성도 증가, 일부 업종의 기업은 적극적인 경영 및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

○ 이에, 산업이 그 체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, 경제 환경의 적기 점검을 통해 불확실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·연구계의 공동 노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

□ 경제연구소들은 대외 여건의 완만한 개선*, 기저효과**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는 ‘상저하중(上低下中)’의 흐름을 예측하고 있으나,

* 정책 수단이 제한된 가운데서도,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 기대
** `11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 둔화가 진행

○ `12년 전체적으로는 작년(3.6%)보다 낮은 3%대 초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음

※연구소들의 `12년 성장률 전망치: 2.9~3.6% (상반기 2.8~3.0%, 하반기 3.0~4.0%)

○ 하반기 경제의 최대 이슈로 연구소장 전원이 “유로 재정불안”과 “가계부채”를 지적하고 있어, 수출·내수 모두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암시

※ 연구소장들이 제기한 하반기 주요 경제적 이슈
①해외 : 유로 재정 불안, 중국 경착륙 우려, 미국 회복세 주춤, 이란 제재의 영향
②국내 : 가계부채, 부동산경기 부진, 안정적 정책운용(통화·금리·외환)

○ 특히, 유로존 이슈의 경우, 사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경제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,

- 다수의 이해관계국이 존재하는 관계로, 간헐적인 불안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,

- 관련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전개가 가능함을 감안, 각각에 대한 사전 예측 및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

※ 유로존 위기의 전개 시나리오(예시)
① EU 재정통합 합의를 도출, 유로존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 해소
② 재정통합 합의 도출 실패, 현재의 제도적 불안요인이 잔존
③ 일부 회원국의 유로존 탈퇴, 유로존 존립에 대한 우려 급속히 증폭

□ 산업별로도, 대내외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자동차·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수출·생산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,

○ IT 분야가 스마트기기·프리미엄 제품의 견조한 수요, 런던올림픽 특수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점은 긍정적 요인

□ 유가·환율 등 대외변수의 경우,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유가하락 및 환율(원/달러)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

○ 하반기 유가는 $90대 초·중반(두바이油, 배럴당) 수준으로, 상반기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연구소들이 다수이나,

- 유로 불안(하락요인), 이란 핵협상(상승요인) 전개에 따른 등락 가능성 존재

* 에너지경제연구원 : 하반기 유가를 $93/B로 전망 (단, $83~109 사이 등락 가능)
* Dubai油(월평균, $/B) : (`12.1월)109.5→(3월)112.5→(5월)107.3→(6.1-6.28)94.5

○ 환율은 무역 흑자, 한국 경제 신뢰도 상승에 따른 제한적 하락도 가능하나,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1100원대 중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

* 원달러환율(월평균) : (`12.1월)1144.6→(3월)1126.9→(5월)1157.1→(6.1-28)1164.6

□ 지식경제부는 금번 경제연구소장 간담회를 시작으로, 올해 하반기는 실물경제의 여건·동향 점검에 본격 매진할 계획으로,

○ 8월중 「30대 그룹 간담회(하반기)」를 개최, 기업들이 연초 계획하였던 투자·고용*의 차질없는 추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,

* 1.13일 「30대 그룹 간담회(상반기)」 때, 30대 그룹은 `12년중 총 151.4조원의 투자와 12.3만명의 신규채용 계획을 제출

○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·전문가간의 의견 교환 및 정책 대안 탐색이 가능하도록, "업종별 릴레이 현장점검단"의 순차적 개최를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

- 업종별 대표기업(중소·중견·대기업)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, 업계·연구계·증권업계·언론 등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병행

※「업종별 릴레이 현장점검단」(안)

○ 대상 업종 : 자동차·조선·철강·석유화학·반도체·디스플레이·기계 등 주력산업 대상으로 점검 (필요시 추가)

○ 참석자 : 업계, 학계·연구계, 증권·금융업계, 언론 등 다양한 관계자 망라

- 업계: 규모(중소·중견·대기업)별 대표기업
- 학계·연구계: 교수, 경제연구소
- 증권·금융업계: 증권사 analyst, 금융기관
- 언론: 경제 전문 기자

<붙임 : 경제연구소장 간담회 개최 계획>

□ 개 요

○ **목 적 :** 우리 산업경제의 現 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예상되는 이슈 및 과제를 점검함으로써 우리부의 대응방안 수립에 참고

○ **일 시 : 2012. 7. 2(월) 07:30~09:00** * 조찬 포함

○ **장 소 :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, Classic 7**

○ **참석자**

- **(지경부)** 장관, 1차관, 산경·성장·무투·자원·협력실 실장, 대변인, 산업경제정책관, 산업경제정책과장, 경제자문관 등 11명

- **(민간)** 삼성경제硏, LG경제硏, 현대경제硏, SK경영경제硏, 포스코경영硏, 중소기업硏, 한국경제硏, 국제무역硏 등 8개 기관

- **(국책)** 산업硏(발제), 한국개발硏, 대외경제정책硏, 에너지경제硏, 정보통신정책硏 등 5개 기관

□ 진행 순서

시 간	내 용	비 고
07:30-07:35	장관 인사말씀	* 포토세션
07:35-07:45	하반기 전망 및 예상되는 주요 경제·산업 이슈	산업硏 송병준 원장
07:45-08:55	산업경제 현 상황 진단 및 하반기 전망 하반기 주요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	* 조 찬
08:55-09:00	장관 맺음말씀	